

클린순창 운동, 군민과 함께

추진보고회... 농지클린 심사제 등 42개 주민 밀착형 시책 추진 일정 논의

전 군민이 참여하는 운동인 클린순창 운동이 군민 옆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간다.

군은 지난 2일 군영상회의실에서 클린순창 추진보고회를 갖고 42개 주민 밀착형 시책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신동원 부군수 주재로 30여명의 관련 실과장과 실무 추진을 맡고 있는 계장급들이 참석해 실질적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실과와 읍면에서 실제 추진할 수 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민 밀착형 사업들이 발굴 보고됐다.



인계면 농촌폐비닐 일제수거의 날

군은 우선 클린순창 운동의 상징적 마을이 될 클린생생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군은 5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안길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클린순창 추진유수마을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클린순창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도 펼쳐진다. 내집앞 화단가꾸기를 추진하고 낮 등안은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쓰레기 없는 순창만들기에 나선다.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도 추진한다. 군은 우선 농지클린 심사제를 운영한다. 각종 보조사업 선정 시 폐농약 폐비닐 등 사업대상지가 깨끗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다. 또 비닐하루

수 주변 적치물 정리, 농업인 학습단체화 함께하는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읍면에서는 주민 자율조직을 통한 클린순창 추진에 역점을 둔다. 풍산면에서는 클린순창 여성리더 연합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다른 면에서도 핵심리더,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클린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신동원 부군수는 "클린순창 운동은 순창군이 추진하는 독특한 의식개혁 운동이다"며 "오늘 보도된 주민 밀착형 시책들이 모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공직자들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3년부터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클린순창운동은 4년차를 맞으며 쓰레기반입량 감소, 음식물 쓰레기 감소, 재활용품 증가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을 클린순창 추진 2기로 삼고 의식개혁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고창 명품 잡곡 미국 LA 간다

(췍청맥, 오색보리 등 4종 4.5톤 수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잡곡 4.5톤이 미국 LA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됐다.

보리, 현미 등 잡곡을 전문 가공·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 (췍)청맥(대표 김재주)은 오색보리, 검정보리, 자수정보리, 찰현미 등 4종의 잡곡을 소포장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수출을 시작했다고 3일 전했다.

이번 수출은 지난 해 12월 두 차례에 걸친 현지 마켓 테스트를 통해 고창 명품잡곡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정식으로 수출 계약이 이뤄졌다.

고창잡곡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어, 윤기가 많고 영양가가 높은 게 특징이다.

김재주 대표는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현지의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식탁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 명품 잡곡이 미국 한인들에게 고향의 맛을 떠올리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 수출을 통해 지역 내 농가들의 소득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봄철 조림사업 본격 착수

11억 5000만원 투입 265ha에 편백나무 외 5종 60만본 식재

임실군은 산림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11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2016년도 봄철 조림사업 을 예정보다 앞당겨 본격 착수한다.

'봄철 조림사업'은 265ha의 임야에 최근 건강수종으로 인기가 높은 편백나무 외 5종 60만본을 식재해 대기정화, 수원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추구와 군민 복지지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최근 산림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피톤치드 효과가 높아 인기가 많은 편백나무(130ha)와 바이오피스 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밀원수와 가꾸재료 활용가치가 높은 백합나무(50ha) 조림을 확대 조성하게 된다.

또한, 군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산림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조성한 울나무재배 단지가 현재 50ha를 초과해 국·공유림까지 확대되면 전국적인 울나무단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사회 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 일자리



임실군은 산림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2016년도 봄철 조림사업 을 예정보다 앞당겨 본격 착수한다.

제공과 열악한 농촌의 새로운 소득증대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개강

전문농업 CEO반·강소농반 편성 11월까지 35강좌 진행

순창군이 3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16년 농업농촌혁신대학 개강식을 갖고 농촌핵심인력 육성에 본격 나섰다.

이날 개강식은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입학생 58명 등 100여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해 농업농촌 혁신대학에 입학하는 교육생들을 축하했다.

농업농촌혁신대학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처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진행되는 농촌인력 양성 교육이다.

군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교육은 전문농업 CEO반과 강소농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오는 8일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농업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반별로 모두 35강좌를 진행한다. 집합교육 31강좌,

현장교육 4강좌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이 찾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농산물가공, 농산물마케팅, 농촌체험관광, 리더십 등 농업의 다차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해 지역 핵심리더를 육성할 방침이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농촌의 변화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인력이다"며 "오늘 개강식을 갖는 혁신대학은 변화하는 농촌 환경의 흐름을 이해하고 마케팅 기법에서 친환경 농업 기법 등 실무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 교육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군농업농촌혁신대학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32명의 농촌 핵심인력을 배출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고창군의회 제234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는 제234회 임시회를 3일 개회해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소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신약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총 7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상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민생관련 안건들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2016년 한 해 추진하게 될 군정 운영 방향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임시회 취지를 밝히면서 군민의 뜻이 군정 곳곳에 펼쳐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명예환경감시원 34명 위촉

임실군은 3일 농민교육장에서 '명예환경감시원 34명'을 대상으로 위촉식 및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2년 동안 활동에 나설 '명예환경감시원'은 자율적 환경보전과 환경과 괴 예방을 위해 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며, 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를 담당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활동력 강화를 위해 환경 감시 및 신고요령 숙지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감시원의 올바른 자세와 정신을 강조해 지역 환경자킴이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예환경감시원의 적극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다각적인 시책들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예환경감시원은 범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자율적 오염 감시 기능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순수 자원 봉사자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17일 새봄맞이 대청소

"새봄을 맞아 겨우내 묵은 때를 말끔하게 씻어 건강한 남원을 만듭시다"

남원시가 오는 17일 새봄맞이 깨끗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오후 2시부터 실시할 대청소에는 유관 기관 사회단체, 통·리장, 마을지도자 시민 군부대, 공무원 등 약 3,000여명이 참여해 관내 28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 농경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 골재·계곡 등의 방치폐기물 등에 대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여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주택가 등 불법투기지역에 상시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고,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하천 만들기를 위하여 지속적인 청결활동 전개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경찰, 선거사범 근절 홍보활동

임실경찰서는 오는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홍보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흑색선전, 향응 제공 등 흑색 선전을 예방하기 위해 임실군 노인회관 및 각 마을 노인정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 행위의 종류와 처벌 내용, 신고포상금 등을 집중홍보하였다.

선거 관련 금품이나 물품을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선거 신고 시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후신 경찰서장은 "단 한 건의 불법행위도 용납 없는 선거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